

우원식 국회의장 자전거 출근...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정청래·장동혁 대중교통 출근...'장거리 면제·렌터카 이용' 꼼수도 정부 2부제 강화 예고에 "지방선거 두 달 앞두고 부담" 불만도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쁜 선거철에 일률적으로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불만소리와 함께 '5부제 회피'를 위한 일각의 꼼수도 눈에 띄는 모습이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자전거 출근했다. 국회의장은 이날도 국회 서클로 출근했다. 이석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km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따름이 출근 O일차', '이번에 내려요', 'OO번 버스', '더민주에너지 절약 실천' 등 메시지를 노출하는 식

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도부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 서클로 출근했다. 이석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km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따름이 출근 O일차', '이번에 내려요', 'OO번 버스', '더민주에너지 절약 실천' 등 메시지를 노출하는 식

다. 불필요한 이동을 피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점심시간 사무실 소동, 텀블러 이용 등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도 SNS에 올리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주 1회 '제로데이'를 운영한다. 하루 동안 '일회용품 제로', '차량이용 제로', '종이활용 홍보 제로' 등 3무(無)를 실천해 SNS에 올리면 당 지도부 등이 '좋아요' 등으로 홍보하는 식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회의원의 공적 활동에 이용하는 차량까지 일률적으로 부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논리다. 한 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많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꼼수'로 차량 5부제를 피하다 들쭉날쭉도 했다. 국회는 장거리 출퇴근자(30km 이상)에는 5부제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는데 차량 등록지를 지방 지역으로 변경해 예외를 인정받다가 논란이 된 것이다. **진정화 기자**

4월 봄 나들이 차량 증가...주말·낮 시간대 교통사고 주의

최근 3년간(23~25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 주말과 낮 시간(12~15) 연중 최대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재)는 최근 3년간(23~25년) 4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9명(3년 합계)으로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35명(3년합계) 보다 낮은 수준이나 주말 및 낮 시간대 인명손실 비율은 연중 최대 수준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4월은 본격적인 봄 나들이 차량이 늘어 교통량과 정체길이가 증가하면서, 추돌사고 위험이 가중된다. 특히, 주말 교통사고 인명손실 비율은 34.5%(10/29명)로 연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12시부터 15시 사이 발생한 사망자는 6명(3년 합계)으로 낮 시간대 사망자가 전체의 20.7%(6/29명)를 차지해 연중 최대이다.

이는 평균기온 상승으로 활동량이 늘고 나른함과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졸음운전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월은 작업장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손상된 도로시설물 집중 정비로 작업차단 건수가 월 8.9천 건으로 상반기 중 가장 많기 때문에 작업장 교통사고 위험 역시 높아진다. 작업장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23~25년) 총 19건으로 3년 월 평균(9.5건)의 두 배에 달하며 연중 최대이다. 4월은 다른 달에 비해 작업현장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은 운전 중 작업장 안내표지판을 발견하면 당장 작업장이 보이지 않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차선도 미리 변경해야 한다. **이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4월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수작업이 많은 시기"라며 "운전자는 작업장 안내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봄 나들이를 즐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예방적 관리 조치로 알람순찰을 실시해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정체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졸음 취약시간대(12~15시)에 사이렌·음성안내계도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유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고 취약 지점의 시선유도시설을 일체 정비하는 등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영진 기자**

한전,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공식 출범 신뢰 경영

AI·디지털 전환 시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대응 체계' 구축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4월 1일(수)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수탁사-자문기관 합동으로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위한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회는 AI 기술의 확산과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중한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는 경영관리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자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사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실질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정책', '수탁사 협력', '유출사고 대응' 등 3개의 실무 분야를 구성·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개인정보 업무의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논의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 ▲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및 안정성 확보 관리·감독 ▲ 한전-수탁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직원 자율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캠페인, 정기점검,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안중은 경영관리부사장은 "데이터의 가치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전은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이영진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컴플라이언스 강화... '고객신뢰경영' 선포

출범 5주년 기념 선포식 개최...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강화 원수사 수준의 정교한 '데이터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이하 한금서)가 1일(수)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출범 5주년[1]을 맞아 '고객신뢰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금서 최승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했다. '고객과 함께 걸어온 5년, 신뢰로 완성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고객신뢰경영 의지를 담은 실천서약을 선언했다. 지난 5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질적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한금서는 그 일환으로 4월부터 '데이터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 지역본부, 지역단 차원에서 표준 모델 없이 관리되던 지표를 정교화하고, 이를 본사 차원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최근 GA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정밀 분석으로 불건전 영업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예로, 보험영업 현장에서 유의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인 ▲

같은 고객에게 서로 다른 설계사가 체결한 보험이 여러 건인 계약 ▲ 기존 보험을 해지한 후 새로운 보험으로 설계된 계약 등 불건전 영업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수차례화했다. **이송원 기자**

또한 설계사 및 계약 특성 단위로 세분화된 지표를 산출해 현장 관리자에게 분기마다 제공한다. 한금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점에서 사업본부, 본사까지 이어지는 '3중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본사 관리자는 시스템에서 상·하위 10개 지역단 현황을 비교하고, 지점·항목별 추이 그래프와 계약 상세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세부 지표를 지속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최승영 대표이사는 "출범 5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이 결의한 '고객신뢰경영'은 한금서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며, "건전한 영업 문화 구축에 앞장서는 리딩 컴퍼니로서 GA업계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송원 기자**

하나금융그룹,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뉴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모집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기업과 우수한 인재를 연결,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지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뉴시니어(5060세대)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여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혁신기업과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뉴시니어 등의 구직자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

에 동시에 기여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사회까지 창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는 물론 인턴 급여를 증액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혁신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총 250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으로 전년보다 참여 인원을 20명 확대했으며, 인턴십 급여도 10만원 증액해 매월 최대 230만원이 제공된다. 인턴십 참여자들에게는 급여 외에도 월 30만 원 한도 내 ▲ 맞춤형 성장지원금(시 플랫폼 구독료,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 월

15만원 ▲소상공인 가족 참여자 지원금 월 10만원 ▲다자녀가정 경력보유여성 교육지원금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월 1회 공통 역량 강화 교육 ▲월 최대 2회 인턴십 AI 활용 교육 등 실무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인턴 채용이 완료된 사회혁신기업에는 3개월간 인턴십 참여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 시 추가로 2개월의 인건비를 제공해 기업의 인재 확보와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 중 경력보유여성 유형에 결혼이민여성을 포함시켜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지닌 여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송원 기자**

'유해·위험요인 데이터베이스'로 협력업체 안전역량 강화

최근 9년간 중대재해 등 분석, 위험 요인 감소 대책 6만 2천여 개로 세분화 공사 전담 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위험성 평가 컨설팅' 병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영세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유해·위험요인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는 사업 특성상 대부분 소규모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세한 협력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자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사는 건설 현장 산업재

해 사례를 분석해 '유해·위험요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협력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공사 종류별 위험 요인과 위험 요인 감소 대책을 담았다. 공사는 최근 협력업체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자료를 대폭 고도화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의 공사 산업재해 및 국내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해, 기존 1만 8천여 개였던 위험 요인 감소 대책을 6만 2천여 개로 세분화했다. **이영진 기자**

이와 함께 위험성 평가서 작성 예시를 수록해 협력업체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더 나아가 '현장 밀착형 안전 컨설팅'으로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공사 안전 전담 인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자료 활용법을 안내하고, 협력업체 직원과 현장 근로자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실습'을 진행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영세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사가 보유한 안전 자산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건설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